

 질병관리본부	<b>보도자료</b>	<b>배 포 일</b>	4월4일	<b>매 수</b>	총4매	
		<b>보도일시</b>	<b>보도참고자료</b>			
	<b>말라리아기생충팀</b>	<b>팀 장</b>	이영희	<b>전화</b>	02-380-2180	
		<b>연구사</b>	전형일		02-380-2182	

## (Filariasis) 퇴치선언

### < 주요 내용 >

□ 질병관리본부(본부장: 이종구)는 2008년 4월 2일(한국시간), 지난 2000년대 초까지 국내에서 유행했던 후진국형 기생충질환인 사상충증이 한국에서 퇴치되었음을 제5차 Global Alliance Elimination Lymphatic Filariasis (GAELF) 국제회의(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개최)에서 선언했다고 밝혔다.

\* 코끼리피부병이라고도 하는 사상충증은 사지 및 성기에 발생하여 피부가 두꺼워지는 질병으로 서태평양,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등지에 주로 유행하고 있으며, 전 세계에 약 1억명 이상의 감염환자가 있음

□ 질병관리본부는 사상충증 퇴치인증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07년까지 『사상충증에 관한 역학조사 및 WHO 퇴치인증사업』을 수행하여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의 사상충증 환자발생과 전파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WHO 사상충증 퇴치위원회에서 한국의 사상충증 퇴치를 인증하여 사상충증 퇴치를 선언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.

⇒ 한국의 사상충증 퇴치를 위한 상세한 사업내용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하는 『주간 건강과질병』 창간호('08년 4월4일)에 게재된다.

## □ 개 요

- 우리나라에서 사상충증은 지난 1927년에 사지의 피부가 두꺼워지는 상피병 환자로부터 충체를 발견함으로써 처음 밝혀졌으며,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 일부 남해 도서지방 주민들의 사상충증 감염률이 8%까지 보고된 바,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, 발생 지역 보건소 및 관련 대학과 공동으로 사상충증에 관한 역학조사 및 WHO 퇴치인증획득을 위한 퇴치사업을 수행하였음
-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사상충증 환자실태 및 전파 차단 확인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"사상충증 퇴치인증"을 획득하기 위하여,
  - 지난 2001. 1. 1 ~ 2007. 12. 30까지 7년간 과거 사상충증이 유행한 전남, 제주 및 경북 지역 177개 마을 및 31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14,001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,
  - 지난 2005.8월 WHO 자문관 방한 및 퇴치자문회의 개최에 이어서 2006년 두 차례(6월과 8월) 사상충증 퇴치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WHO 사상충증 퇴치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였으며,
  - 이에 금번 제5차 Global Alliance Elimination Lymphatic Filariasis (GAELF) 국제회의에서 퇴치선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.
-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6년 홍역 퇴치선언에 이어서 이번에 사상충증 퇴치인증획득으로 우리나라의 전염병관리에 대한 국가 신임도를 향상시켰으며,
  - 그 동안 우리나라가 사상충증 유행지역으로 등록되어 기생충 질환 관리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오인된 상황도 해소하였다고 밝히고,
  - 사상충증 퇴치수준 유지를 위한 국제전문가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아직도 사상충증이 유행하고 있는 동남아시아, 서태평양 및 아프리카 지역 유행국에 퇴치사례 보급 및 기반 마련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하였다.

## <참고자료>

### 1. 사상충증이란?

- 말레이 사상충 (*Brugia malayi*)의 성충이 주로 사지나 척추주위의 림프절에서 성숙하여 주위조직에 섬유화를 진행시키고 사지와 피부가 두꺼워져 수종다리, 코끼리피부병, 피내림병 등으로 알려져 있다.



- 사상충증은 열대풍토성 기생충질환으로 서태평양지역,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주로 유행하고 있으며 사상충증에 대한 기록은 기원전 1500년 이집트의 기록이 있다.
- 전 세계에 약 1억 명 이상의 감염환자가 있으며 한국은 현재까지 사상충증 등재국으로 등록되어 있다.
- 일본은 1962년부터 1971년(10년)간 사상충증퇴치 국가프로젝트를 수행하여 1979년 퇴치하였으며 중국은 1950년대부터 감염실태조사 실시 및 치료를 시작하여 2008년 4월 퇴치선언 예정으로 있다.
- 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사상충은 우리나라에서 1927년 상피병 환자를 부검하여 충체를 발견함으로써 처음으로 존재를 확인한 이래 1960년대부터 여러 조사자들에 의해 내륙지역, 제주도 및 전라남도 등지에서 지방적 유행이 밝혀져 왔으며 지역에 따라 12% 이상이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

## 2. 1960년 ~ 2000년 전국 감염상 현황

### 1) 1960년대

- 전국 8개도의 30,284명을 검사하여 947명의 환자 발견 및 투약

### 2) 1970년대

- 전국 유행지역 (전남, 경북, 제주)을 중심으로 주민 15,342명을 검사하여 659명의 환자 발견 및 투약

### 3) 1980년대

- 사상충증 유행지역 (전남, 경북, 제주)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7,303명을 검사하여 84명의 환자 발견 및 투약

### 4) 1990년대

- 사상충증 유행지역인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1,021명을 검사하여 7명의 환자 발견 및 투약

### 5) 2000년

- 사상충증 유행지역의 전남 신안군 주민 466명을 조사하여 6명의 환자 발견 및 투약

### 6) 2002 ~ 2006년

- 과거유행지역 177 부락 총 14,001명을 조사하여 2명의 양성자를 확인하여 투약·치료
- 2명의 양성자는 조사 당시 모두 60대 이상의 노인으로 혈액 내 감염농도 또한 매우 낮은 것 (1-2마리/120ul)으로 조사되어 전파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판정 (WHO 자문회의, 2005),
- 과거 유행지역내 초등학교생을 중심으로 한 조사에서 감염자가 없었으며 국내에서 더 이상의 사상충증 전파는 없는 것으로 판정 (WHO 하노이 사상충증 퇴치회의, 2007년)